

‘국가유망기술 21’ 로 세계 10위 진입

-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열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국가유망 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후속 조치계획’ 등 다음의 4개 안건을 심의했다.

◆ 미래 국가유망 기술분야 선정결과와 후속 조치계획

이 안건은 10~20년 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에너지·물 부족, 고령화, 빈부격차 등의 미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됐다. 미래 국가유망 기술분야는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지난 5월 제시한 761개 기술과제 중에서 시장성, 삶의 질,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 2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분야는 재생 의과학 기술, 핵융합 기술, 맞춤형 학·신약 기술,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 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인공위성 기술, 기후변화 예측·대응 기술,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등이다.

국가위는 이번에 선정된 기술 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2015년경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5천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현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국 중 26위인 삶의 질도 20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세계 10위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략적인 기술지도(TRM)를 작성하고, 2006년 8월까지 미래 국가유망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의 선점과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학제간 연구개발에 주안을 두고 민·관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 실천계획

이 안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전략’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세부과제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이공계 대학을 혁신하고 세계적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며, 산·학·연의 협력을 토대로 기술개발 능력과 현장인력 양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 신설, 2단계 BK21 사업 추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산·학·연 협력연구실 운영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3대 부문, 10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새로 위촉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민간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과학기술부는 “국과위 민간위원 9명 중 8명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황우석(52) 서울대 석좌교수는 재위촉하고, 나머지 7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국과위 민간위원은 채영복(6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중용(61)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윤대희(54)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손혁재(51)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택(48) 전남대 공과대학 학장, 신미남(44) 퓨얼셀과워 대표이사, 송혜자(37)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 7명이다.

재위촉된 황우석 교수와 신규 민간위원 등 8명은 제18회 국

점과제, 2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국과위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10년경 세계 200위 이내 대학을 10개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을 25%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배분 결과

이 안건은 2004년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배분 권한이 부여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R&D 예산 조정·배분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다. 2006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8조 7천718억 원으로 정해졌다.

주요 특징으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창조적 인력 양성, 지방 R&D, 기초연구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인 규모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모두 7천855억 원을 투자해 올해의 5천865억 원보다 33.9% 늘었다. 지방 R&D와 기초연구 비중도 각각 전체 국가 R&D 투자에서 36.3%, 23.5%로 올해의 33.7%, 21.5%에서 크게 높아졌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액은 2천317억 원에서 2천649억 원으로 14.3% 증가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부처 지출한도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확립했다.

과기부는 국가 R&D 예산 조정안을 기획예산처에 통보,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이 안건은 기초연구 발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부문 계획으로 작성해 오던 것을 별도의 중기 계획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구를 탐색·심화·고도화 등 3단계의 연구발전으로 구분했다. 탐색 연구는 지원대상 인력을 확대하고, 심화연구는 연구비를 증대하는 등 연구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우선 과제수와 액수(3개 또는 3억 원)를 제한하여 신진 연구자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독자적 연구원으로서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수당 현실화와 소규모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현행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순수연구 활동에 34.5%, 개인연구에 38.6%, 집단연구에 61.4%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연구과제 중 신진연구자(20~30대)의 수혜 비율은 2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위(8월 29일)에 참석하는 것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과기부는 “이번 국과위 민간위원은 경제계 2명(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 1명), 시민단체 1명, 학계 1명, 여성계 1명, 과학기술계 3명 등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촉했다”면서 “각계의 명망있고 전문성이 높은 새 민간위원들이 국과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만든다

- 연내 지역 기술혁신·전략산업 육성 위한 밑그림 예정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RTRM : Regional Technology Road Map)’을 작성하고 있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과총, 인터넷 뉴스레터 'STS observer' 창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월27일 인터넷 뉴스레터 'STS observer' 를 창간 발행했다.

뉴스레터 'STS observer' 는 올해 4월 잠정 폐간된 종전 한글문서 형식의 뉴스레터 'KOFST Weekly Newsletter' 를 5개월 만에 혁신·재창간한 것으로 앞으로 매주 화요일 발행, 과총 소속 회원 단체 및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에게 발송된다.

과총은 이 날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최근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와 관련, 남북과학기술협력을 머리기사로 다루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봤다.

또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STS observer' 창간호 인터넷 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과학기술 주요 법안의 타결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오명 부총리는 창간호 기념 축사를 통해 “ 'STS observer' 가 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의견 교환과 참여 확대에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총 관계자는 “뉴스레터를 통해 과총-회원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회원들의 다양한 참여 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회원단체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히하여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과총은 이번 뉴스레터 창간과 함께 '제 1기 young 과총 리포터' 도 공개 선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직접 학교나 지역 과학기술계 소식을 취재해서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뉴스레터의 제호 'STS' 는 'Science & Technology Society'

이번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의 작성은 지난 5월에 수립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상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내에 최종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 16개



의 약자로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매체의 방향성을 암축한 것이다. 태그라인(매체 슬로건)도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 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 과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과총은 이번 'STS observer' 의 발행과 함께 홈페이지(www.kofst.or.kr)에 별도의 뉴스레터 홈페이지(news.kofst.or.kr)를 마련, 보다 풍부한 소식과 동향을 전하고 있다.

시·도별로 각각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바 있는데, 이번에 작성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은 이들 전략산업을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주로 포함하게 되며, 특히 현재 산자부에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자체에 대해 작성중인 지역산업기술지도와도 로드맵의 대상기간, 세부기술분야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

성하게 된다.

다만,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은 16개 시·도별로 선정된 총 64개 전략산업 중 비(非)R&D 분야인 관광·문화 등을 제외한 59개 핵심 산업기술에 대해 작성하게 되며, 앞으로 산자부·지자체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금년 9월말경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 상정·심의한 후 연내 확정토록 할 예정이다.

지역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기술혁신 관련 정책과 사업 기획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자료로 제공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기관의 '05년도 성과목표 확정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기관(22개) 및 과기부 소속 출연기관(8개)의 '05년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출연기관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연구회와 과기부가 소속 출연기관의 '05년도 연구사업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국과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과학기술계 출연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여 확정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출연기관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성과목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제공(5월 16일)하였고, 연구회 이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6월 3일)한바 있으며, 출연기관에서는 이러한 성과목표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안)을 마련하였고,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회와 기관 임무와의 부합성, 성과목표의 혁신성과 일류지향성,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와의 연관성,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구체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출연기관별로 3~6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소관 출연기관이 제출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안)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앞으로 출연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맞

춰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05년도 목표대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 '06년도 2~4월경에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연구회와 출연기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과 학습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향후 출연기관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며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성과목표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출연기관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성과중심의 기관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과학과 기술' 편집위원진이 전면 개편됐다.

'과학과 기술'은 학술 및 저술 활동의 충분한 경력을 토대로 과학기술계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해 과학 대중화에 앞장 설 수 있는 전문가들로 편집위원진을 강화·개편했다.

다음은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진 명단.

- 편집위원장 : 박택규 건국대 화학과 명예교수
- 편집부위원장 :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및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 편집위원
 - ▶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서울대 생물학과(1978), MIT MS(1982), Harvard MA(1984), Oxford D. Phil (1986)
 - Harvard Post-doc, 조교수(1986-1992), 서울대 생명과학부(1992~현재)
 - ▶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 부교수
 -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1985), 대학원(1987), Temple Ed.D. (1994)
 - 이화여대 교수(1994~현재)
 - ▶ 김동환 고려대 재료공학부 교수
 - 서울대 금속공학과(1982), 대학원(1984), Stanford (1994)
 - 고려대 재료공학부(1995), 산자부 태양광사업단 단장(2004~현재)
 - ▶ 이은정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 서울대 미생물학과(1987), 대학원(1994), 서울대 의대 의학박사(의사학, 2005)
 -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1995~현재)

정리_ 미디어팀